

## 국가별 동향



### 말레이시아

#### KFC홀딩스 인도에 매장 진출

말레이시아 KFC홀딩스는 2010년 말까지 인도의 주요 20개 도시에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매장은 룸바이와 푸네에서 올해 말 오픈 예정이다. KFC홀딩스 탄 스리 무하마드 알리 하심(Tan Sri Muhammad Ali Hashim) 회장은 인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30%를 채식주의자용 메뉴(콩 등으로 만든 고기대체식품)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가 방대한 시장 규모로 인해 미개척 시장인 반면에, 운영비용이 높아서 마진은 적다고 밝혔다. KFC홀딩스는 인도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에 최대 2백만 링깃(한화 약 7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1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Asian Agribusiness)



### 필리핀

#### 홍수로 인해 가금산업 손실

필리핀의 최대 양계 생산지역인 루손섬과 리살

주의 양계 사육자들은 9월말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케사나에 의해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 40년동안 최악의 홍수인 이번 재난과 관련하여, 양계생산자협회 그레고리오 산디에고 회장은 농업부와 협회가 공동으로 루손섬의 양계단지에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규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특별히 연휴시즌을 대비해 닭고기의 수입도 고려하고 있다. 필리핀은 2006년에 큰 태풍이 왔을 때에도 닭고기 생산량이 5천톤 가량 부족했던 경험이 있다. (Asian Agribusiness)



### 베트남

#### 닭다리 수입 검역 회피

베트남 검역당국은 호치민시의 한 항구를 통해 수입된 뒤 통관을 슬쩍 피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던 40톤의 폴란드산 닭다리를 찾아냈다. 이 폴란드산 닭다리는 Viet My社에 의해 48톤이 수입되어 시내의 상인들을 통해 유통됐다. Viet My社는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당국은 이 닭다리가 품질과 위생상태가 기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폴란드산 닭다리를 정밀조사 목록에 추가했다. (Asian Agribusiness)



## 투르크메니스탄

### 최초의 양계단지 조성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풀사이클 양계단지인 Gush Toplumy가 아칼주 바할리 지구에서 준공됐다. 이 양계단지는 계사 6개동에 벨기에산 기계장비를 갖추고, 부화기, 도계시설, 사료공장 등을 갖췄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한 농장이 풀가동되면 연간 3천 톤의 닭고기와 4백만 개의 계란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미래에는 도계육, 통조림 등으로 세분화된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양계단지에는 18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양계단지 준공식에 참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이 양계단지의 시설수준이나 생산규모가 국제적 표준과 부합한다고 강조했으며, 농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the Poultry Site)



##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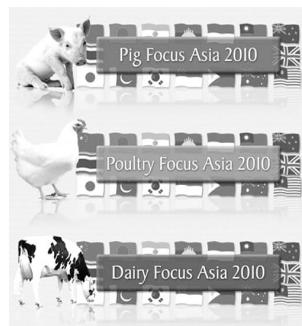
### 닭고기 수출 40만톤 육박

태국닭고기생산수출협회 Kukrit Arepagron 간사에 따르면, 태국의 올해 닭고기 수출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0만 톤에 임박했다. 특히 유럽 바이어들의 태국 닭고

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태국은 이미 올해 할당쿼터인 16만 33톤을 살짝 넘긴 16만1천톤의 닭고기를 EU로 수출했다. 태국의 양계생산자들은 EU의 쿼터가 늘어나길 원하고 있으며, ASEAN을 바탕으로 쌍방 또는 다자간 무역블록을 형성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저관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Asian Agribusiness)

### FOCUS(양돈, 양계, 낙농 토론회) 개최

태국의 전시업체인 NCC는 2010년 3월 1~3일 방콕임페리얼 퀸파크호텔에서 국제 토론회인 FOCUS(양돈, 양계, 낙농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



최측은 1월 15일까지 참가등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대폭 감액해 주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축산의 모든 분야가 주제로 선정되어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90명이 넘는 강사들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주제는 특히 영양, 육종, 위생(건강)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본다. 참가비는 양계양돈의 경우 360US\$이고 낙농은 240US\$이다. 하지만 기간내에 등록하면 양계양돈은 240US\$, 낙농은 160US\$로 참가할 수 있다.(NCC) 양계